

제2차 세계대전과 처칠의 리더십

李來珠

(육군사관학교 교수)

- 머리말
- 처칠의 정치경력
-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영국의 대응
- 처칠의 전시 리더십
- 맺음말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단적으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래로 전쟁 수행에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이 동원, 투입되었고, 이는 근대 이래로 전쟁이 총력전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쟁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후장식 개인화기, 기관총, 견인용 대포, 탱크, 항공기 등 수많은 신무기가 등장하여 전쟁 양상에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승리를 결정짓는 불변의 핵심요인은 이를 운용하는 인간의 역할, 즉 소프트웨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쟁이 각종 첨단무기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중에 리더들은 대두되는 각종 문제 및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전쟁을 이끌어갔는가? 이는 시공의 차이를 넘어서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처칠(Winston S. Churchill, 1874-1965)은 20세기를 통틀어서 영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그의 유명한 연설이 말해 주듯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상으로서 독일의 공격으로 영국이 외로운 항전을 할 때 영국인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불어넣어 결국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초전의 열세를 극복하고 중국에는 히틀러의 나치즘에 사형선고를 내릴 수가 있었다.

당대에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경우에 처칠은 출생시부터 상당한 이점을 안고 있었다. 영국 유수의 귀족가문인 말버러 가(家)에서 태어났기에 어려서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된 상태였다. 그의 부친인 랜돌프 처칠(Randolph Churchill)은 19세기 말 솔즈베리 내각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수상직까지 넘보던 거물 정치가였다. 가정교사를 통해 초등과정을 마친 처칠은 명문 중등교육기관인 헤로우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아니라 사관학교를 졸업한 처칠의 경력은 당시로서는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이후 정치가로서 그의 경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 특히 제1차

1) John Grigg, “Churchill and Lloyd George” in R. Blake (ed.), Churchill(Oxford: Clarendon Press, 1996), pp. 97-98. 처칠에 대한 전기는 엄청난 분량을 가진 마틴 길버트(M. Gilbert)의 저술에서부터 개괄적인 팜플렛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 중에서 최근에 영국의 대표적 역사가들 중에 하나인 지오프리 베스트(Geoffrey Best) 교수가 쓴 Churchill: A Study in Greatness(London: Penguin Books, 2001)가

대전을 주도하였던 로이드 조지가 수상으로서 군사전략 수행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킨 데 비하여, 처칠은 보다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서 군 수뇌부를 장악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그의 육사 졸업 경력이 상당한 힘이 되었다.

이러한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젊은 시절에 개혁적 성향의 급진파 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초기에는 자유당에서 상무부장관 및 내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해군장관으로서 활약하였다. 전후에 보수당으로 당적을 바꾼 그는 1920년대 중반에 볼드윈의 보수당 정부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정부의 유화정책과 히틀러에 반대하면서 재야에서 활동하다가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²⁾

이러한 정치활동을 통해 그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해와 배치될 경우에도 이를 우선시하였다. 전시 전략수행시 군 수뇌부와 겪은 마찰도 수상으로서 갖는 고차원의 국가이익과 저차원에 속하는 전장에서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주변에 풍부한 전문가 집단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십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쟁수행 과정을 통하여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단호한 결단력을 갖고 영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산적하였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 수상으로서 정치,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처칠의 전시 리더십을 고찰하고, 나아가서 유용한 역사적 교훈을 도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칠의 정치적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영국의 전쟁

처칠의 생애를 간명하고 조리 있게 서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처칠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Ian S. Wood, *Churchill*(London: Macmillan, 2000)이 유용함.

수행을 처칠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전시 리더십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처칠의 정치경력

한마디로 처칠의 정치 경력은 화려하다. 그는 1908-15년, 1917-22년, 1924-29년, 그리고 1939-40년에 내각의 각료였고, 마침내 1940-45년, 1951-5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상직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세 번에 걸친 개인적 위기-다다넬스 해협 상륙작전 실패(1915년), 로이드 조지 연립정부의 실각(1922년), 그리고 램지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한 국민정부의 수립(1931년)-를 맞았지만, 이를 모두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1917년에 수상 로이드 조지의 도움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재기하였지만, 1922년에 보나 로와 스탠리 볼드윈이 로이드 조지파 자유당 세력을 보수당으로부터 축출하는 와중에 처칠은 재차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1924년에 보수당 정부의 재무부장관에 임명되어 금본위제로의 복귀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였다. 1929년에 보수당 당수였던 볼드윈이 선거에서 패하자 처칠은 보수당 당권에 도전하였다. 이에 실패한 처칠은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시까지 약 10년 동안 정치적 야인으로 남아 있었다.³⁾

1886년에 재무부장관에 오르면서 차기 수상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랜돌프 처칠의 아들로서 처칠은 자신의 정치역정을 개척해 나갔다.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종군기자 자격으로 인도, 수단,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 영 제국의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필명을 드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군의 포로로 생포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일약 영국민

3) R. Parker, "Introduction", in *W. Churchill: Studies in Statesmanship*, pp. xv-xvi.

의 영웅으로 부각된 처칠은 이러한 인기를 등에 업고 급기야는 1900년에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⁴⁾

의회에서 명연설로 재차 주목을 받은 처칠은 의회에 진입한지 채 5년도 안된 31세의 나이로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내각의 각료가 된 처칠은 업무에 정통하였음은 물론이고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였기에 그의 이러한 태도는 항상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아들 랜돌프의 회고에 의하면,⁵⁾ 일단 자신의 업무와 정부의 제반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처칠은 “평의원이었을 때는 마치 차관인 듯 말하고, 차관이 된 다음에는 장관인 듯이 그리고 장관이 된 이후에는 수상인 듯이 말하였다”고 한다.

각료로서 처칠은 초기에는 주로 국내 문제와 관련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1905년에 식민부 차관으로 첫 행정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게 되었다. 당시에 식민부장관이었던 엘진 경(卿)은 상원의원이었기에 하원에서 행해진 모든 업무처리는 처칠이 담당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가 식민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엘진 경이 이러한 처칠의 노고를 치하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⁶⁾ 처칠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간혹 상관인 엘진경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식민부 차관의 직책에 만족하였다.

식민부 차관으로 행정경험을 쌓은 처칠은 1908년에 산업과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무부의 책임자로 영전하게 되었다. 상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는 영국민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제반 사회보장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려고 하였다. 당시에 자유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영국이 사회주의 혁명에 휩쓸리

4) M. Gilbert, *Churchill: A Life*(New York: Henry Holt, 1991), pp. 45-50.

5) Randolph S. Churchill, *Winston Churchill: Young Statesman, 1901-1914*(Boston: Houghton Mifflin, 1967), p. 117.

6) S.F. Hayward (김장권 역), 《지금 왜 처칠인가》(중앙 M&B, 1997), p. 225.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최저 수준’의 보장임을 깨닫게 되었다. 상무부의 업무 중에 산업분쟁은 중재법정을 설치하여, 그리고 실업문제는 직업소개소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이 시기에 처칠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당시에 보수당은 보호무역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해 처칠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당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직을 수행한 2년 동안 명성이 알려지면서, 1910년 2월에 처칠은 약관 35세의 나이로 내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새로운 부서에서도 처칠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갔다. 그는 형무소와 형 집행 선고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노조파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였다.⁷⁾

그러나 1911년 7월에 독일이 전함을 모로코의 아가디르 항에 파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처칠은 관심의 범위를 국내의 사회개혁에서 대외문제로 확대하였다. 그 동안 처칠은 자신이 샌드허스트를 졸업하였고 해외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및 외교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영국정부의 해군 군비 증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제2차 모로코 사건을 계기로 급선회하였고, 마침내는 1911년 10월에 에스퀴스 수상이 제안한 해군부 장관직을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1915년 5월까지 거의 4년 동안 해군부를 이끌면서 처칠은 해군참모단 및 항공대 창설, 함대의 연료인 석유 공급원 확보 등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다다넬스 해협 원정이 실패하자 그는 내각에 사표를 제출하고, 1915년 5월-1917년 7월까지 최전방인 프랑스 전선에서 영국군 야전부대를 지휘하였다.

1916년 12월에 영국 정치계에 변화가 일어나서 수상 에스퀴스(H. Asquith)

7) 처칠이 취한 사회정책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Ian S. Wood, “Chap. 7 Churchill, Party Politics and Social Policy,” in *Churchill*(London: Macmillan, 2000), pp. 113-39를 볼 것.

가 사임하고 후임에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가 선출되었다.⁸⁾ 1917년 7월에 로이드 조지는 프랑스에 있던 처칠을 불러들여서 군수물자부장관에 임명하였다. 그는 신설 초기라서 잡다한 조직들의 엉성한 집합체와 같았던 군수물자부를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부서로 변모시켰다. 종전과 더불어 육군부장관에 임명된 처칠은 골칫거리였던 군대 예산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였다. 1921년에 식민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처칠은 민감한 사안인 아일랜드 자치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일랜드 내부의 강력한 분파주의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1922년말 선거에서 낙선한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을 회고하는 저술 작업에 몰두하면서, 이 기간에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재차 당적을 바꾸었다.

1924년에 스탠리 볼드윈(Stanley Baldwin)이 영도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처칠은 내각의 부책임자격인 재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후에 처칠은 약 5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안들을 다루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25년에 영국을 금본위제로 복귀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통화 수축이 유발되어 영국경제가 상당한 혼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처칠을 비난하였지만, 실제로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이미 그 전에 법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다.⁹⁾ 물론 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처칠은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당시에 기업가들은 물론이고 여론조차도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전폭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오히려 대영은행(Bank of England)의 책임자였던 몬태규 노먼(Montagu Norman)이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주장할 때에도 처칠은 좀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8)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세계대전시의 민군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인 <제1차 세계대전 시 영국의 군사전략수행과 민군관계>, 《군사》 제36호(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245-67를 볼 것.

9) C. L. Mowat, *Britain between the Wars 1918-1940*(London: Methuen, 1955), p. 200.

1929년 선거에서 처칠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보수당도 패배하였다. 그는 인도 독립(1929년) 및 군비강화(1932년) 문제를 놓고 당과 다른 입장을 갖게 되자 보수당에서 탈당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1930년대 동안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소외되는 '재야시절'을 보내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독일군의 군비증강에 초래할 위협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의 재무장을 주장하기 위해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동안에 그는 다수의 저술을 집필하였다.¹⁰⁾ 이외에도 신문 칼럼과 잡지 기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는 창작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중요한 자질인 '역사적 상상력'을 보다 풍부하게 키울 수가 있었다. 특히 18세기 초에 연합군을 이끌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군대에 대항하여 싸웠던 자신의 선조 말버러 공작에 대한 전기에는, 시공상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감당할 역할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¹¹⁾

처칠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다고 하여 그를 역사라는 과거에 집착하는 인물로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가 얻는 것은 과거에 대한 통찰력이었지, 변화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처칠은 20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치고는 여러 면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그는 원자폭탄이 등장하기 20년 전에 이미 핵무기의 출현과 이것이 전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글을 발표할 정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9월에 처칠은 체임벌린 내각에서 해군부장관에 임명되었다. 9개월 이후에 체임벌린이 사임함에 따라 마침내 처칠은 수상이 되었고, 종전 직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¹²⁾

10) 예컨대, 그의 조상인 말버러경에 관한 전기 《말버러-그의 인생과 시대(Marlborough: His Life and Times)》(4권 짜리)를 썼고, 1939년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History of the English Speaking Peoples)》(1956년에 4권 짜리로 출간)를 집필하였다.

11) S.F. Hayward (김장권 역), 《지금 왜 처칠인가》(중앙 M&B, 1997), p. 39.

12) 체임벌린의 사임과 처칠의 수상 취임,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영국 국내의 정당정치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K. Jefferys, *The Churchill Coalition and Wartime Politics*,

처칠이 수상에 취임하게 된 이면에는 유럽 대륙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었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군과 연합으로 유럽 대륙에 주둔하고 있던 40만명의 영국원정군은 수적으로는 독일군에 필적하였지만, 질과 참모들의 역할에서는 독일군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영국군은 1940년 5월에 유럽 대륙을 포기하고 덩커크에서 가까스로 철수해야만 하였다. 이후 영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정부의 확고한 태도와 특히 처칠의 용기를 복돋우는 연설 덕분에 영국민들의 사기는 매우 고양되어 있었다. 처칠은 나치 독일군의 공격에 결연하게 맞서서 영제국을 수호할 것임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초전에 영국이 고립된 상황에서 히틀러에게 결연하게 대항하였던 처칠은 1941년에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처칠은 전시 리더로서 활약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승리감에 젖어있던 처칠은 1945년 7월 선거에서 노동당 당수 애틀리(Clement Attlee)에게 일격을 당하고 말았다. 의외의 패배를 당한 처칠은 1951년에 다시 수상직에 복귀할 때까지 보수당을 이끌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을 집필하였고, 이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55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처칠은 서방과 소련 간을 중재하면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내세울 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영국의 대응

1939년 9월 3일에 영국은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을 이유로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전쟁 초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상당부분 1930년대에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1940-1945(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91)를 참고할 것.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대규모 전쟁의 발발을 부인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이 기간 동안에 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되었다.¹³⁾ 이외에 전간기(戰間期)에 영국이 겪은 심각한 경제불황과 독일의 위협을 과소평가 하는 분위기가 국방비의 비율을 더욱 축소시켰다.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영향은 심각하였다. 영국 공군은 폭격기 편대의 증강을 건의하였지만, 정부는 좀더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중방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전략적 요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1930년대 말까지 어떠한 규모의 병력도 유럽대륙에 파병할 수가 없었고, 제1차 세계대전시와 비교하여 고위 지휘관들의 자질도 뒤떨어지는 형편이었다.¹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이전의 전쟁시와는 구별되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우선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시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전장에서 전략적 위협에 직면해야만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에 영국은 1914-15년에 프랑스 및 러시아군의 방어우산 덕분에 자국 군사력을 독일군 격퇴에 집중시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영국 해군은 가상적국으로 설정된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극동지역에 해군력을 강화해야만 하였다. 또한 1933년 이후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하고 히틀러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유럽 대륙에서는 나치 독일의 위협에 대응해야만 하였다. 1935년에 에티오피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1930년대 말에 이르면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의 위협에, 인도로 가는 길목에서는 이탈리아의 위협에, 그리고 극동에서는 일본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전 직전에 영국이 당면하였던 이러한 전략적인 문제들을 감안할 경우

13) 전간기에 영국의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Brian Bond, *British Military Policy between Two World Wars*(Oxford, 1980)을 볼 것.

14) W. Murray, "Chap. British Military Effectiveness in the Second World War" in A.R. Millett and W. Murray(eds.), *Military Effectiveness Vol. 3: The Second World War*(Boston: Allen & Unwin, 1988), p. 91.

에, 대전 초기에 독일군의 공격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간기에 행키 경(Sir Maurice Hankey)의 주도로 만들어진 효율적인 정책결정체계 덕분이라고 로스킬(Roskill)은 평가하고 있다.¹⁵⁾ 처칠은 3당 연합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소수 인원으로 전시내각을 만들었다. 그는 특히 군부와의 관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로이드 조지에 비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유럽에 파병된 영국군의 규모가 제1차 세계대전시에 비해 적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는 장군들의 반대로 인해 곤란을 당하지 않았다. 더구나 처칠은 국방장관직을 겸함으로써 3군 참모총장들을 수하에 거느릴 수가 있었다. 비록 군의 수뇌부는 처칠이 상대하기가 결코 쉽고 대화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서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그 동안 육군부와 해군부를 이끌면서 그가 이룩한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처칠 또한 그 동안 자신이 주도하였던 각종 군사작전들이 실패로 끝났던 점에 유념하여 가능한 한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¹⁶⁾

전쟁이 발발하자 수상과 전시내각 산하에 특별한 임무를 가진 여러 위원회들이 설치되었다. 1940년 5월에 처칠이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한 이후에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정부수반인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각군 총장들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들이 영국군의 전략과 작전수행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수상과 내각이 군사적 및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던 전쟁 발발 이전에는 민군체계가 영성하였지만,¹⁷⁾ 처칠이 수상이로서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15) Stephen Roskill, *Hankey*, Vol. 3(London, 1974), p. 419. 영국은 수상이 정부의 법률 및 실행 분야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시와는 달리 처칠은 수상으로서 연립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16) M. Pugh, "Chap. 15. The People's War", in *State and Society: British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1870-1992*(London: Edward Arnold, 1994), p. 225. 제1차 세계대전시 처칠은 안트워프와 다다넬스 작전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안트워프 작전은 독일군의 북해 연안 항구 점령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갈리폴리에 상륙거점을 구축하려던 다다넬스 작전은 처칠이 책임을 지고 해군장관직을 사임할 정도로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17) W. Murray, *op. cit.*(1988), p. 93.

타고난 추진력, 관료조직에 대한 감각, 그리고 지적인 능력 등이 군 수뇌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전략 수립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규모 군대를 무장시킬 경제적 및 기술적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였다.¹⁸⁾ 1939년 봄에 독일군이 체코의 프라하를 점령하자, 영국의 여론은 국방비의 증액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적어도 1939년과 1940년에 상당한 금액이 재무장 계획에 투입되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하여 국방비 증액을 어렵게 만들었던 재무부의 견제정책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재무부장관 사이몬경(Sir John Simon)은 심지어 1939년 4월에 조차도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사력 증강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할 정도였기 때문이다.¹⁹⁾

1940년에 처칠의 등장과 더불어 국가방위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함락, 독일공군에 의한 폭격 위협, 그리고 영국 본토에 대한 침공 가능성 등과 같은 위기감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1914년 이래로 영국의 산업적 역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조선업 부문에서의 쇠퇴는 더욱 심각하였다. 해군함정 건조, 독일 잠수함에 대한 대응무기 제작, 그리고 수송선 건조 등의 요구에 직면한 영국의 산업계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없었다.²⁰⁾ 물론 공군의 경우에는 체임벌린 정부가 전쟁 전에 주로 공군 전투력 증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해군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²¹⁾

18) 1930년대 영국의 재무장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G.C. Peden, *British Rearmament and the Treasury, 1932-39*(London, 1977)를 볼 것.

19) PRO PREM 1/296, Letter from Simon to Chatfield, 17 April 1939.

20) 제2차 대전 중에 영국의 경제상태가 전쟁수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Alan S. Milwar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wo World Wars on Britain*, 2nd ed.(London: Macmillan, 1984)를 볼 것.

21) 1940년 늦여름까지 영국의 전투기 생산율은 독일의 거의 두배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탱크와 트럭 생산에서도 같은 해 가을에 이르면 독일의 생산량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B. Klein, *Germany's Economic Preparations for War*, Cambridge Univ. Press, 1959, p. 99).

전쟁 초기에 영국정부가 내세운 전쟁목표는 당시 영국의 전력을 고려할 때 그런대로 합리적인 것이었다. 즉, 히틀러를 제거하고 ‘덜 공격적인’ 괴뢰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히틀러의 나치군대가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을 때, 새로 수상에 취임한 처칠이 내세운 ‘히틀러를 패망시킨다’는 전쟁목표는 당시 영국의 전력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처칠은 미국과 소련이 장차 줄곧 중립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란 전략적 신념에 입각하여 이처럼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였던 것이다.²²⁾

1940년에 영국은 대륙을 장악한 나치 독일군에 단독으로 맞서야만 하였다. 특히 독일군의 영국 본토 공습에 대해서 영국은 해안선 대공 방어능력 강화 및 유럽 대륙내 나치 저항세력들에 대한 지원으로 응수하였다. 1941년 초반에 이르면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았고, 지중해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로 침략함으로써 영국은 이곳에 군대를 파견해야만 하였다.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과 더불어 상황은 다소 영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소련과 미국의 참전 덕분에 영국은 전략적인 문제점들을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의 저항은 독일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에 대한 영국의 군수물자 지원은 점차 증가하여 영국산업에 부담을 주게 되었고, 이의 운송책임을 맡은 영국해군에게도 고민거리가 되었다. 독일해군이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영국해군의 입장에서는 행동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도 울트라라고 불린 전략정보가 승리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국해군의 풍부한 경험이었다.

영국의 공군전략은 독일공군 폭격기들의 야간폭격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기술적으로 갖추기가 어려웠기에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시부터 과학기술 발전이 전쟁에 미칠 영향에 깊은

22) *Hansard*, 13 May 1940, cols. 1501-02.

관심을 기울였다. 한 예로 제1차 세계대전시에 영국에서 발명된 탱크는 처칠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실현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칠은 현대전의 특성을 간파하고, 수상이 된 다음에 특히 항공기(전투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 공군력에서 독일에 앞서기 시작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이 공군만 갖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었다.²³⁾

영국은 근본적으로 재정부족에 직면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였다. 마침내 1941년 3월에 루즈벨트는, 처칠이 “양국 간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무기대여법에 서명하였다.²⁴⁾ 이제 영국은 전쟁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가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대여법과 영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미 구축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제국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군의 인도 철수 및 제국호혜관세 등의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였다.

미국의 원조 덕분에 급한 불을 끄기는 하였지만, 1943년에 이르면 영국은 동원할 인력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산업인력과 실제 전장에 투입될 전투인력 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도 고민거리였다.²⁵⁾ 인력문제를 주관한 노동부장관 에른스트 베빈(Ernest Bevin)은 1942년 5월 경에 군 인력동원은 이미 최대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생산 분야에 좀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칠은 전략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수상과 군 수뇌부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23) S.F. Hayward (김장권 역), 《지금 왜 처칠인가》(중앙 M&B, 1997), p. 129.

24) M. Gilbert, *Winston S. Churchill, Vol. 6: Their Finest Hour, 1939-1941*(Boston, 1983), p. 1032.

25) 전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정부의 체반 조치에 대해서는 M. Gowing, “The Organization of Manpower in Britai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7(1972), pp. 147-67를 볼 것.

있었지만, 처칠이 군수뇌부에 요구한 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군사적 조언이었다. 만일 양측 간에 처칠이 주장하는 방향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군수뇌부는 수상의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좀더 신중하게 재고해야만 되었다.²⁶⁾ 하지만 수상과 군수뇌부 간에 전쟁수행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칠이 자신의 생각을 분별없이 군부에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처칠의 풍부한 사고는 다량의 메모와 지시사항을 통하여 전쟁수행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다.

실제로 처칠이 군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경우는 몇 번에 불과하였다. 처칠에 대한 고위 장교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그가 체임벌린을 대신하여 수상이 되었을 때, 한 장교는 다음과 같이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이제 단순한 협력의 차원이 끝나고 리더십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²⁷⁾ 실제로 그는 전쟁 발발 전 영국정부의 전략정책 집행과정을 지배한 타성적인 분위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수상에 취임한 이후에는 “당장 실천으로 옮겨라”라고 할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였다. 체임벌린과는 달리 논의가 부적합할 경우에 실행 보류 상태로 놓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²⁸⁾

26) 처칠과 그의 각 분야 보좌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J. Colville, *Winston and His Inner Circles*(N.Y., 1981)를 볼 것.

27) Sir Leslie Hollis, *One Marine's Tale*(London, 1956), p. 66.

28) W. Murray, *op. cit.* (1988), p. 102.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41년 5월에 지중해 전역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어 영국의 석유 공급선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국 정부의 작전개시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동지역 사령관이었던 웨벨(Wawell)은 보유 병력규모가 적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부대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지 사령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지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영국군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심각한 전략적 위협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4. 처칠의 전시 리더십

총력전 하에서 국가의 리더로서 처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²⁹⁾ 우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유지시켜야만 했다. 둘째로, 연합군이라는 틀 속에서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도출해내야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와 행정체계를 전략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장악해야만 했다. 이 모든 요구들을 충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어느 정치가보다도 처칠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처칠은 인생의 출발부터 속성상 군인이었다. 샌드허스트를 졸업한 다음에 국내의 경 기병대 및 수단과 남아프리카와 같은 식민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의 최전선에서 제 6 스코틀랜드 소총 연대를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영국인들은 인도, 이집트, 수단, 남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북서부 전선에서 군복을 입고 동분서주하고 있던 처칠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처칠 자신도 위대한 선조 말버러 장군의 뒤를 잇는 군인으로 간주하길 좋아하였지만,³⁰⁾ 동료 장교들은 그를 군인이 아니라 장관이자 내각의 각료로서 기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인 1930년대를 통해서 처칠은 정부의 유화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정치적 야인으로 있던 이 기간에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및 선조 말버러 장군에 대한 책을 집필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29) J. Ehrman, "Lloyd George and Churchill as War Ministers," in H.R. Winkler (ed.), *Twentieth-Century Britain: National Power and Social Welfare*(London, 1976), p. 52.

30) J. Keegan (ed.), *Churchill's Generals*(London, 1991), pp. 1-2.

그를 비난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유화정책을 주장할 때, 그는 정치권 및 언론의 거센 비난을 감수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의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랜 동안의 정치생활 끝에 마침내 처칠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영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1940년 5월 10일)에 히틀러가 서방에 대해 선전포고하였다. 바로 전날 의회에서는 영국군의 노르웨이 원정 실패를 놓고 수상 체임벌린을 책임 추궁하는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었다. 이제 체임벌린은 보수당에서조차 신임을 얻지 못하였고, 그가 제안한 연립 정부안은 자유당과 노동당에 의해 거부되었다. 마침내 처칠이 영국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버킹엄 궁에서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시 자신의 전선 경험을 회상하면서 결전의 의지를 다짐하였다.

그렇다면 처칠은 어떻게 위기에 처한 영국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였는가? 제1차 세계대전시의 로이드 조지와는 달리 처칠은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임하였다.³¹⁾ 그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이 주도하였던 다다넬스 해협 공격의 실패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기인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는 불완전한 권한을 갖고 일을 시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결국에는 실패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국방부장관을 겸함으로써 처칠은 전시에 중요한 전략적인 지휘권을 장악한 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전쟁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명확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하 각 기관 책임자들에게 적극적인 추진력과 단호한 행동,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하였다.³²⁾

또한 처칠은 불필요한 조직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직의 책임자에게는

31) M. Pugh, “Chap. 15. The People’s War”, in *State and Society: British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1870-1992*(London: Edward Arnold, 1994), p. 225.

32) S.F. Hayward, *op. cit.*, p. 75.

권한을 대폭 위임하였다. 그의 조직 구성력과 과거 전쟁시의 경험은 수상으로 취임한 1940년에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시에 군수물자부의 조직을 정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비대한 조직을 줄이는 일에 착수하였다. 수상에 취임한지 2주만에 처칠은 내각 비서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별 성과도 없이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를 모두 통폐합하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썼다.³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처칠이 정리한 것은 전시내각이었다. 당시에 전시내각은 9명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숫자였다.³⁴⁾ 우선, 그는 3명의 군관련 장관들과 참모총장들을 제외시키고 5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전시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전시내각은 부서간 별다른 잡음 없이 광범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처칠 자신이 국방장관직을 겸임하여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최고책임자가 된 것이었다. 이로써 처칠은 군의 책임자들과 직접 접할 수가 있었고,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었다.

총력전에 요구되는 군수물자 생산면에서도 조직을 정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물자부에서 취한 조치를 모델로 하여 처칠은 국방부 내의 전쟁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두 개의 핵심 위원회에서 관장케 하였다. 물론 처칠은 두 위원회의 의장직을 담당하였다. 이후에 처칠은 “나는 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³⁵⁾

33) *Ibid.*, p. 94.

34) 무엇보다도 9명의 각료 중에는 3명의 군관련 장관(해군, 육군, 공군)과 각군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중복이었다. 정책은 국민이 뽑은 각료들이 수립하는 것이고, 군의 책임을 맡은 참모총장은 수립된 정책에 대한 실행만을 책임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들마저 내각에 참여하다보니 내각에서 실행 계획까지 논의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에는 정책결정에서 혼란과 지체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전시내각이 결정한 정책을 군에 전달하는 조정역을 담당하는 군사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는 어떠한 부처에 대해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였다.

35) *Ibid.*, p. 97.

제2차 세계대전기에 처칠과 육·해·공군 고위 장교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쟁에 대해 낭만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칠의 심중에 있던 영웅은 바로 18세기 초반에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의 선조 말버러 공작이었다. 처칠은 직접 말버러 공작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처칠은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³⁶⁾ 처칠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전쟁의 본질에 관한 통상적인 가정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는 나름대로 정교한 정의를 발전시켰다.

처칠이 설정한 기준에 의하면, 극소수의 군 고위장성들만이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였다. 이외에 대다수의 장군들을 그는 경멸조로 ‘지적인 꼭두각시(intelligent scribes)’로 본 듯하다. 그는 일거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호탕하고 배포가 있는 영웅을 찾고 있었다. 마운트배튼 경, 알렉산더, 엘런브루크 등이 그의 기준에 드는 용기와 매력을 겸비한 장군들이었다.³⁷⁾ 육군의 고위 장교들에게서 질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리더십을 얻지 못하였을 때, 처칠은 자신이 후원자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열망하던 승리를 가져다준 몽고메리는 처칠이 싫어한 모든 특질들을 갖고 있었다. 몽고메리의 방식은 사려 깊게 계산하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시에 갈리폴리 전역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에 입각하여 처칠은 항상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주관하려고 하였다. 어느 문제에 부딪히면 그는 자신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던 없던 간에 즉각 해결책을 강구할 것과 방법을 찾았으면 이를 즉각 실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 해군장관으로서 그의 경험은 이러한 속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36) W.S. Churchill, *Marborough: His Life and Times*, 2 vols. (London, 1947)를 참고할 것.

37) M. Carver, “Churchill and Defence Chiefs” in R. Blake and Wm R. Louis (eds.), *Churchill: A Major New Assessment of His Life in Peace and War*(Oxford: Clarendon Press, 1996), p. 354.

그는 노르웨이 원정작전에서 나타난 작전수행상의 혼동과 비효율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론상으로 정책결정을 내리는 기구는 내각이었지만, 이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전쟁 초기에 영국에는, 채트필드 예비역 제독을 주축으로 국방현안을 조율하는 군사협력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내각의 결정을 국가적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더욱이 체임벌린 수상이 이를 주관하지 않았기에 권위가 없는 실정이었다. 비록 처칠이 해군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무엇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육군이나 공군에 대해서는 명령권한이 없었다.³⁸⁾ 합당한 작전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군의 노르웨이 원정 실패로 이어졌다.

원정 실패의 책임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처칠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군사작전으로 옮기는 조직이 매우 모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체임벌린 후임으로 수상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조직을 단순화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뒀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왕의 승인을 얻어서 그는 국방부장관에 취임하였고, 방위청(Defence Office)으로 알려진 일종의 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였다. 방위청의 책임자로 임명된 이즈메이(Hastings Ismay)는 처칠의 개인 대표로서 참모총장들과 회의시 그들에게 처칠의 의중을 전달하고 반대로 논의된 내용을 처칠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중요한 군사적 결정들은 이른바 ‘참모 회합’이라고 불린 처칠과 각군 참모총장들과의 모임에서 처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육·해·공군 장관들을 경유하지 않고서 중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군 고위장성들 중에서 대전 초기에 총참모총장(CIGS)를 역임한 아이언사이드 경(Sir Edmund Ironside)이 처칠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는 처칠이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열정과 용기를 겸비한 맹장이자 수 개 국어를 구사하는 지장이기도 하였다. 1940년에 불가피하게 처칠은 그를 해고하였지

38) *Ibid.*, p. 355.

만, 이에 대해 후자는 “처칠이 내켜서 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친구에 대한 신의를 얼마나 중시하는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술회하였다.³⁹⁾ 이외에 처칠과 함께 활동한 군 고위장성들로는 아이언사이드 후임으로 총참모총장에 임명된 존 딜 경(John Dill), 해군장관 더들리 파운드 경(Sir Dudley Pound), 공군원수 차알스 포탈 경(Sir Charles Portal), 중동지역에서 영국군을 지휘한 웨벨 경(Sir Archibald Wavell) 등을 들 수가 있다. 노르웨이 원정의 실패와 덩케르크 철수, 그리고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작전 등을 계기로 1941년 중반까지 처칠은 육·해·공 수뇌부를 자신의 타입에 맞는 인물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특히 처칠과 해군 수뇌부와는 항상 신중하였다.⁴⁰⁾ 후자는 처칠이 제1, 2차 세계대전시에 해군장관으로서, 그리고 수상으로서 해군작전에 간섭한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은 수상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생각하였다. 처칠 역시 자신의 의도가 그 동안 해군 제독들의 반대로 좌절되거나 성사된 경험에 익숙해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군 수뇌부와는 긴장관계를 늦출 수 없었던 처칠은 1941년에 중반 이후에는 관심을 공군 수뇌부로 집중하였다. 왜냐하면 1941년 연말에 이르면서 영국은 독일 내 도시들에 대한 전략폭격에 돌입하였고, 이로 인해 공군 수뇌부와는 접촉이 빈번해져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43년 중반에 이르러서 처칠은 자신의 의도대로 군 작전을 유도할 정도로 군 수뇌부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전선에서 미군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군 전략운용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처칠은 더 이상 군사작전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었다. 물론 이로 인해 그가 연합군의 지휘본부에 있던 몽고메리나 알렉산더와 같은 영국군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대부분의 경

39) S.F. Hayward (김장권 역), 《지금 왜 처칠인가》(중앙 M&B, 1997), p. 111.

40) 처칠과 해군 수뇌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S. Roskill, *Churchill and the Admirals*(London, 1977)를 볼 것.

우에 처칠과 영국의 각군 참모총장들은 연합군 전략을 둘러싸고 미군과 논의할 때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가끔씩 서로간에 의견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⁴¹⁾

전략적 견지에서 처칠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우선, 그는 정보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만큼 폭넓은 정보들에 접하였던 정치지도자도 드물었다. 그는 직접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좋아하였다. 그는 참모총장들이 현지 지휘관에게 보낸 모든 전문의 사본은 물론이고 영국 첩보원들이 입수한 정보보고서 원문 자체를 읽어보고자 하였다. 그는 항상 자신이 관할한 전 분야에 걸쳐서 무슨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였고, 장차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까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전쟁 초반에 그런대로 영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통계와 양적 분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쟁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통계를 처리할 통계사무실을 설치하여 활용하였다. 이처럼 풍부한 정보를 접한 덕분에 처칠은 전시내각의 각료회의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준비된 상태로 임할 수가 있었다.⁴²⁾ 후자는 처칠을 고집불통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이처럼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보좌관 및 동료 각료들의 폭넓은 자문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처칠은 달변가였다. 의회 내에서나 청중 앞에서나 매우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닌 연설을 하였다.⁴³⁾ 정치가로서 처칠이 갖고 있던 약점이자 강점은

41) M. Carver, *op. cit.* (1996), p. 374.

42) S.F. Hayward, *op. cit.* (1997), pp. 115-16.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정치가란 원래 항상 여론을 의식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통례인데 처칠은 그렇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강점으로 작용하여 수상까지 되었다. 처칠의 ‘솔직한 발언’은 결단력 있는 그의 성품에서 나왔다. 일반적인 정치가들의 행태와는 달리 처칠은 결단 내리기를 선호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졌다. 처칠은 전쟁 수행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⁴⁴⁾ 물론 그의 과단성 있는 결정은 간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의 결단력 있는 태도는 국민의 지도자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시의 경험에 입각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정부가 혼돈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쟁수행의 최고기구였던 전시내각과 최고책임자였던 에스퀴스 수상의 수동적인 전쟁수행 방식에서 연유하였다. 내각회의에서 에스퀴스는 예하 각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회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리더십은 평화시라면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상황 하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처칠은 전시운영 방식을 체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⁴⁵⁾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처칠은 군에 대한 민간통제의 우위를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는 제1차 세계대전시에 로이드 조

43) J. Grigg, *op. cit.* (1996), p. 109.

44) H.F. Hayward, *op. cit.* (1997), pp. 35-36.

45) J. Ehrman, “Lloyd George and Churchill as War Ministers,” in H.R. Winkler (ed.), *Twentieth-Century Britain: National Power and Social Welfare*(London, 1976), p. 53.

지가 헤이그 장군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사례를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직하였고, 자신이야말로 최고 지휘관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자주 군복을 입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군사전문가인 장군들을 압도하였는가? 항상 그렇지 않았다. 비록 국방부장관을 겸하였지만, 이는 직함일 뿐이었고 육·해·공군 부서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장악하고 있었다.⁴⁶⁾ 물론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경우에 따라 총장들은 전략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처칠은 조연자 그룹의 도움을 받아 중요사안들을 거의 단독으로 처리하였던 로이드 조지의 전쟁 리더십과는 달리 소수 전시내각의 각료들에게 상당한 임무를 부과하였다. 처칠은 매우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각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역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그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각군 참모총장들과의 관계에서 수상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민간 통제가 약화되었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시에 밀러 경(Lord Milner)이 로이드 조지에게 행했던 바와 같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동료로 전시내각에 갖지 못하였다.

선풍리 우리는 처칠을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정치가’로 간주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는 그에 대한 오해이다. 처칠은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세부적인 사항들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수상직에 오른 초기인 1940년에 처칠은 내각의 각료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그의 비서 중 한 명은 “처칠은 전쟁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었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확인했다”라고 적고 있다.⁴⁷⁾

처칠은 20세기에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시에는 내각의 각료로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영국민의 리더로

46) J. Grigg, *op. cit.* (1996), p. 110.

47) S.F. Hayward, *op. cit.* (1997), p. 49.

서 온갖 난관을 헤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던 시기에 존재했다는 점은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위해서도 행운이었다. 더구나 그는 제1차 세계대전시에 얻은 전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좀더 슬기롭게 이끈 역사적 감각을 가진 정치가였다.

(원고투고일 : 2003. 10. 31,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처칠, 리더십, 제2차 세계대전, 수상, 보수당

K C I

<ABSTRACT>

A Study of Winston Churchill's Leadershi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Lee, Nae-Joo

The history of humankind could be defined as the history of war. Since the ancient times huge materials and manpower were mobilized for conducting the war, and its scope was greatly expanded with the coming of total war. In particular, hardware such as rifle, tank, airplane, etc. has been remarkably developed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the late eighteenth century. However, it is not easy to deny that the key factor in deciding the victory of war is the constant role of humankind involv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wartime leadership of Winston Churchill, who has done the key role in winning World War II, and to get some useful historical lessons.

Winston Churchill was one of the great politicians in Britain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He encouraged the British people by delivering his famous speech known as 'Blood, Sweat, and Tears'. At that time, Britain fought alone against the threats of the powerful German forces. He exerted his great wartime leadership, and finally defeated Hitler's Nazism even though Britain had been under the highly defensive situation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war.

Churchill was born in Blenheim Palace as a son of Lord Randolph, who was the Chancellor of Exchequer under the Salisbury's Cabinet. After taking his early education at the preparatory and at Harrow, Churchill entered the

Military Academy, Sandhurst, to become an officer. His military career gave him some great advantages when he led the count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e could keep in touch with the generals with confidence.

Although he had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traditional, hereditary ruling class of the country, Churchill belonged to the radical MPs' group when he was a young politician. He had experienced several ministerial positions throughout his political life. He was appointe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Home Secretary, and First Lord of the Admiralty under the Liberal Government before and during the First World War. After the war, Churchill left the Liberal Party and joined the Conservative Party. He became Chancellor of Exchequer under Baldwin's Cabinet during the mid-1920s, and then spent his political life to warn the rise of Hitler's Nazism in Germany to his fellow MPs and general public. With the outbreak of the Second World War, at last, Churchill was appointed as Prime Minister who would take the role to save the country from the national crisis.

Churchill tried to keep his conviction throughout his political life that 'national interes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aking a government policy. He gave a priority on it even when his opinion was different from the Party's. During his premiership, Churchill tried to inspire and sustain the morale of the nation, to evolve the most reasonable strategy possible within the framework of an Alliance, and to harness the national economy and administrative system to such a strategy.

Key Words : Churchill, Leadership, Second World War, Prime Minister, Conservative Party